

## 충남 남북교류협력 릴레이 특강(3차)

- 북한 산업실태와 남북경협 -
- 북중무역 변화와 북한 경제 -

 일 시 : 2018. 7. 5.(목) 10:00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남북교류협력 릴레이 특강(3차)

### 북한 산업실태와 남북경협, 북중무역 변화와 북한경제

#### □ 행사 개요

- (일 시) 2018. 7. 5.(목) 10:00 ~ 12:00 (2시간)
- (장 소)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발 표) 이석기 박사(산업연구원)  
최장호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 최) 충남도(경제통상실), 충남연구원

#### □ 세부 일정

진행 흐름		
10:00~10:02	02'	<b>개 회 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 준 원 센터장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li></ul>
10:02-10:07	05'	<b>인 사 말 씀</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충남연구원장</li></ul>
10:07-10:10	03'	<b>강 사 소 개</b>
10:10-11:10	60'	<b>주 제 발 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북한 산업실태와 남북경협<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 석 기 박사(산업연구원)</li></ul></li><li>□ 북중무역 변화와 북한경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 장 호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li></ul></li></ul>
11:10-11:40	30'	<b>자유토론 및 문답</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참석자 전원</li></ul>
11:40-11:50	10'	<b>기념 사진 촬영</b>
11:50-12:00	10'	<b>정리 및 폐회</b>

## □ 남북교류협력 릴레이 특강 개최계획

회차	일시	장소	발표주제	강사
1회	6.25.(월)	충남연4층	남북교류 추진경험 소개	홍상영 사무국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회	6.29.(금)	충남연4층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김진향 이사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3회	7.5.(목)	충남연4층	북한 산업실태와 남북경협 북중무역의 변화와 북한경제	이석기 박사 (산업연구원) 최장호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강사 프로필

회차	성명	소속, 직위	주요 경력
1차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 대학교 수료</li> <li>▪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2015-현)</li> <li>▪ 거래의 숲(대북 산림복원협력단체) 운영위원(2008-현)</li> <li>▪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담당(2005-2010)</li> </ul>
2차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사항) : 경북대학교 정치학박사</li> <li>▪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현)</li> <li>▪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현)</li> <li>▪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14~16)</li> <li>▪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04~05)</li> <li>▪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02~03)</li> </ul>
3차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li> <li>▪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1988-현)</li> <li>▪ 증권감독원(1987-1988)</li> <li>▪ (주요연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산업자원 협력 전략(2011, 공저)</li> <li>- 남북한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2011, 공저)</li> </ul> </li> </ul>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사항) : 미국 Oregon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li> <li>▪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현)</li> <li>▪ (주요연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in 2015: Analysis and Forecasts(2016, 공저)</li> <li>- 북중 분업체제 분석과 대북·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2015, 공저)</li> </ul> </li> </ul>

# 발표자료

[남북교류협력 릴레이 특강 3]

## 『북한 산업실태와 남북경협』

이 석 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산업 실태와 남북경협

KIET 산업연구원

1

KIET 산업연구원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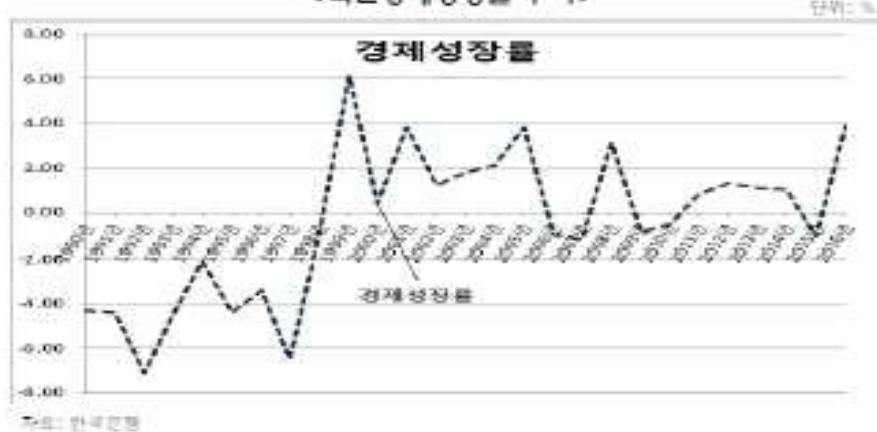
- I. 북한경제 및 산업 개관
- II. 김정은 시대 북한산업 특징
- III.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 경제협력
- IV. 남북경협 관련 몇 가지 쟁점

2

### 가. 북한경제 개관

1970년대까지 나름대로 성장하던 북한경제는 1980년대 본격적인  
침체에 빠졌으며 1990년대 붕괴수준으로 후퇴하였고, 2000년대에  
부분적으로 회복

<북한경제성장률 추이>



3

### 주요 산업 생산량 추이

(단위: 억kWt, 만 톤)

	발전량	석탄 생산량	철광석 생산량	곡물 생산량	사탕수수 생산량	금광 생산량
1988	279	1,070	1,080	621	278	602
1990	277	8,816	828	407	618	888
1998	170	1,580	889	889	816	96
2000	190	2,190	408	418	887	102
2007	287	2,410	613	400	820	128
2008	288	2,608	687	481	820	128
2009	286	2,660	498	411	828	128
2010	280	2,600	609	-	828	128
2011	289	2,660	608	-	826	128
2012	218	2,680	619	-	826	122
2013	221	2,680	623	-	880	121
2014	218	2,709	627	-	888	122
2015	190	2,742	491	-	670	128
2016	227	2,900	678	482	708	122

### 불균등한 회복세

다만, 2000년대의 북한경제 회복은 그 속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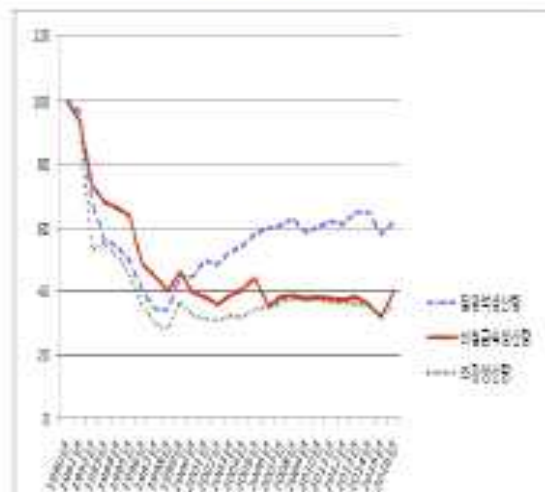
<산업별 생산 추이>



<석탄생산량과 발전량>



<철광석 생산량과 조강 생산>



**북한경제 회복의 원인**

- ❖ 경제운영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의 약화는 시장경제의 확산을 불러왔고, 이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핵심 동력의 하나: 몰락한 공업국가의 부분적인 회복
- ❖ 국제사회의 지원과 대외무역의 확대 등 대외경제관계의 확대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
- ❖ 상업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따른 서비스 산업 주도 경제성장 가능성
- ❖ 사실상 작동이 중단되었던 계획화 체계의 제한적인 작동, ‘기술개건·현대화’로 표현되는 산업정책의 전환,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력 등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와 국지적인 효율성의 증대, 재정 능력의 부분적인 회복과 국가차원 투자의 재개 등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 김정은 집권 이후 이러한 경제회복에 대한 이러한 내부적 요인은 여전히 지속되거나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

7

**북한경제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 몰락한 공업국가**

- ❖ 1인당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저개발국이지만 공업화한 적이 없거나 이제 막 공업화하는 저개발국과는 달리 상당한 공업화이론 나라였음.
- ❖ 이러한 북한경제의 성격은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과 시장화 이해하는데 유용함.

8



나. 북한산업 개관

극단적인 내부지향형 공업화와 붕괴 및 제한적인 회복

- ❖ 북한은 노동력, 수력, 석탄 및 철광석 등 내부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몇 가지의 생산요소에 기반 하여 극단적인 내부 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추구
  - 수자원과 석탄 → 전력, 전력 및 석탄과 철광석 → 철광, 금속소재 → 산업용 기계 → 군수부문 및 경공업과 농업
  - 석탄과 전력 → 석탄화학원부자재 → 농업 및 경공업
  - 원유 등 부족한 원부자재는 사회주의 무역을 통해 외부에서 조달

나. 북한산업 개관

극단적인 내부지향형 공업화와 붕괴 및 제한적인 회복

- ❖ 1980년대에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전력 등 에너지에서부터 금속 및 화학소재, 공작기계 및 산업용 기계 등 기계, 그리고 소비재 및 농업 등에서 나름대로 산업기반을 구축
  - 경공업 및 농업, 그리고 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
- ❖ 1990년대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에 따른 원유 등 핵심 원자재의 수입 중단, 대규모 수해에 의한 식량난 및 노동력 공급 위축, 김일성 사망에 따른 경제체제의 작동 중단 등이 겹쳐 에너지 및 중화학 공업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는 전체 산업의 붕괴로 초래
- ❖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제한적이고, 불균형하게 회복 중

나. 북한산업 개관

제조업 회복의 지연 및 성장 주도 산업의 부재

- ❖ 제조업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해야 하지만, 2000년대 북한경제의 회복 과정에서 제조업은 가장 느리게 회복되고 있음.
  - 1990년 31.8%였던 제조업의 비중은 2000년에 17.7%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 제한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2016년에는 20.6%에 불과
- ❖ 1980년대까지 성장을 주도하던 중화학 공업은 최소한의 자본재 및 원부자재 공급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투자가 증가한 경공업 역시 경제성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음.
- ❖ 무연탄을 비롯한 지하자원과 수산물 등이 수출주력 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이 고용 및 투자 등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11

II. 김정은 시대 북한산업 특징

1.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경제정책 기조는 김정일 시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실행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

- ❖ 시장화 정책
  - 시장의 인정 및 국가 및 공식부문에 의한 시장의 적극적인 활용
- ❖ 경제관리체계의 개편
  -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
- ❖ 에너지 부문에 자원의 우선 배분
- ❖ 실용주의적 산업정책
  - 가용 투자규모나 기술수준에서 성과가 거두기 어려운 중화학공업 부문의 신규 설비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이고, 성과가 나거나 성과 낼 자신이 있는 경공업, 농업, 과학기술, 건설 등에 투자
- ❖ 과학기술 및 인력 양성을 토대로 한 경제성장 전략

12

2.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특징

가. 공식경제, 특히 제조업의 생산역량 부분적 회복 가능성

- ❖ 산업용 기계나 수송기계■ 포함한 기계, 식품 등 일부 경공업, 그리고 IT 등의 분야에서 생산 및 투자활동이 포착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내용도 다양화

2.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특징

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자원 집중 투입 및 제한적인 성과

- ❖ 중대규모 수력발전소의 건설 및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통한 발전량 제고■ 위한 투자
- ❖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확대
- ❖ 송배전망 현대화, 통합 전력공급망의 구축 등 전력 공급 체계의 효율화
- ❖ 전력 사용 체계의 개편을 통한 수요 관리
- ❖ 에너지 절약 및 전환을 위한 투자가 전 산업으로 확산
- ❖ 북한의 전기■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및 설비구조로 전력 및 에너지 부족의 영향이 확대
  - 에너지 절약 및 전환을 위한 투자가 확대
  - 석탄 가스화■ 통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이 많은 산업설비에 도입 등



2.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특징

다. 기계 및 관련 산업의 생산능력 회복 및 기술역량 확충 가능성

- ❖ 중전기 등 그동안 성과가 많이 보도되던 설비뿐만 아니라 그 동안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던 수송기계나 농기계 등에서도 성과보도가 증가
- ❖ 국산 설비에 의한 설비 현대화 추진
- ❖ CNC 공작기계 개발 및 보급과 관련 가능성

라. 식품가공 등 일부 소비재, 중국 제품과의 경쟁 가능성 확보

15

2.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특징

마. ICT 등 기술제품, 수입·판매에서 일부 제조로 발전

- ❖ 종래 기술제품을 수입·판매하던 기술교류소 등이 과학기술부문과 결합,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 사실상의 창업과 유사한 형태

바. 소재부문은 여전히 북한 산업 회복 및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 북한 산업이 2000년대에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금속 및 화학 소재 부문은 회복이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더딤.
- ❖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금속 및 소재 공급 역량의 확대 및 설비 현대화■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제한적

16

## 2.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특징

### <금속소재>

- ❖ 금속공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회복이 더딘 부문이며, 금속 소재 공급의 부족은 2018년 현재 북한 산업 생산 복구 및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 석탄 가스화 고온공기연소기술의 적용을 통한 연료 전환 및 효율화, 설비 현대화, 특히 압연설비 현대화, 그리고 주철철을 통한 선철 공급 역량 확충 도모
- ❖ 신년사 등을 통하여 금속소재 공급의 확대 및 설비의 현대화■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 한편 북한은 중국에 선철 및 합금철을 수출하고, 강철 및 강철제품을 수입하는 무역관계 구축

## 2.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특징

### <화학소재>

- ❖ 1990년대 경제위기시 가장 심대한 타격을 입은 산업
- ❖ 2000년대 중반 화학소재 공급 능력 확충 투자
- ❖ 비료■ 중심으로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의 화학소재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
- ❖ 탄소하나화학공업을 통한 화학소재 공급 능력의 의미 있는 확충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
- ❖ 북한의 석탄화학플랜트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당분간 화학소재는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 III.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 경제협력

#### 1.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협력 여건 변화

- ❖ 북미 정상회담이 큰 지장 없이 개최되어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며, 이후 이행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
- ❖ 남북관계 진전은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비경제적 장애요인이 제거되어 감을 의미
- ❖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북측의 환경, 특히 물적인 환경은 개선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전력, 수송망 및 통신망 등 인프라의 확충에는 막대한 자본과 상당한 기간이 필요
  -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역량의 부족은 중단기적인 남북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제약

15

### III.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 경제협력

#### 1.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협력 여건 변화

- ❖ 북한 지역에서 다수의 외국인 투자 혹은 합작·합영기업이 수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으며, 대북 제재 해제 이후에도 단기간에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
  - 인식의 전환이 제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다수의 협력사업 추진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할 수도
- ❖ 대북 투자에 대한 남한의 독점적 지위 약화
  - 외국 자본을 의식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의 진출을 전제로 어떻게 남한이 주도권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20



### III.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 경제협력

## 2. 시장화 및 경제관리체계의 개편과 실태경험

- ❖ 집권 이후 시장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소비재는 거의 전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며, 생필품만 아니라 사치재의 수요도 증가
  - 행정, 교육, 의료 등 전통적인 국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즉, 상업·유통, 개인서비스, 운수서비스 등도 대부분 시장을 통해서 공급
- ❖ 기업관리체계의 개편에 따른 남북경협 환경의 변화
  -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부터 경제관리체계 및 기업관리체계의 개편을 시작, 대략 2015년경에 법제화 완료
  - 시장가격과 국영기업의 시장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경영 자율성 법적으로 보장
  - 기업에게 무역 및 합작·합영권을 부여함으로써 내각 소속 기업이 직접 남북경협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소비재는 거의 전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며, 생활품만 아니라 사치재의 수요도 증가
- 행정, 교육, 의료 등 전통적인 국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즉, 상업·유통, 개인서비스, 운수서비스 등도 대부분 시장을 통해서 공급

- 행정, 교육, 의료 등 전통적인 국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즉, 상업·유통, 개인서비스, 우수서비스 등도 대부분 시장을 통해서 공급

- ❖ 기업관리체계의 개편에 따른 노동경험 환경의 변화

-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부터 경제관리체제 및 기업관리체제의 개편을 시작, 대략 2015년경에 법제와 완료
- 시장가격과 국영기업의 시장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경영 자율성 법적으로 보장
- 기업에게 무역 및 합작·합영권을 부여함으로써 내각 소속 기업이 직접 남북경협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장가격과 국영기업의 시장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경영 자율성 법적으로 보장

- 기업에게 무역 및 합작·합영권을 부여함으로써 내각 소속 기업이 직접 남북경협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III.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 경제협력

### 3. 대불 제재 완화에 따른 단계적 상불경일 추진 불가피

<보안 일반부영 관련 유엔제재 주요내용>

[illegible]

### III.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 경제협력

#### 3. 대북 제재 완화에 따른 단계적 남북경협 추진 불가피

- ❖ 현 유엔 대북제재 하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은 불가능
- ❖ UN 대북 경제제재 2270 이전으로 부분적으로 완화될 경우 위탁가공 교역 등 제한적인 남북경협 재개 가능
- ❖ 2270 이전 상황으로 완화되면 과거 남북경협 복구 가능
- ❖ 대규모 투자 등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상당 정도 완화되어야 하며, 이는 북미 수교 정도의 관계개선이 되어야 가능
  -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따른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 반출의 제한
  - 미국의 EAR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따른 제약
  -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NTR, GSP 지위 부여까지 적지 않은 시간 필요

23

### III.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 경제협력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관련 법률과 내용 (2016년 이전)>

	제재의 내용			
	관부위법	금산주의	통상지원금(2)	WMD 확산
핵심국 (과학법1)	건설·수입·수출·도매·차산물			
대외경제 ·상조차관 수출 관제법	수출제한	수출제한	수출제한	해당기업 자산동결 해당기업 수출입제한 (자산동결판)
무기수출 통제법	군수출제 거하금지		군수출제 거하금지	1.해당기업 수출입제한 (자산동결판) 2.통조(연도차관 제외), 군수출수출, 국제금융기구 통조(연도차관 제외) (핵확산·핵실험)
대외경제 ·상조차관 수출 관제법		미국·국제금융 기구 원조 금지(3)	미국·국제금융기구 원조 금지(3)	무출입제한·보통·보통·신포 금지(핵확산·핵실험)
보통국무수출 관제법		IMF 원조금지(3)	IMF 원조금지(3)	

주: 1) 2008년 5월 대북적용 해제, 2) 2008년 5월 대북적용 해제, 2017년 11월 재지정, 3) 국제금융기구 원조금지는 가입금지를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

24



### III.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 경제협력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관련 법률과 내용 (2016년 이전)>

	주요법 이름			
	안보차관	공산주의	통일지원법	WFO 관련
국제 인권 의무법			북한인권법 (통조 금지)	
무역법		NTR + GSP 거부	NTR + GSP 거부	
무역통제 개혁법			대북 상업수출 지원 금지	
이란 - 북한 - 시리아 비확산법				해당기업 군수품, 이중용도품 제 수출, 미국정부 조달계약 금지
해파산 방지법				해당기업 미국정부 조달계약 금지
북한인권 법소법				해당기업의 발주금지, 북한인권과 서비스 제공이전 금지
대북 경제 수권법	북한인권 금지		미국 원조 금지, 정부원조 금지, 수출입원조 원조, 차관, 신용, 보험, 보증	북한인권, 안보, 기술 대처이전사 수출입원조, 기업사원 금지(제정됨)

출처: 1) NTR(통상우대조치)이 거부되면 자동적으로 최고관세율(Customs Duty) 적용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자격도 상실

2) 대러지원국(이란, 시리아, 수단, 북한)이 특정하여 거절

25

### III.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 경제협력

#### 4.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 ❖ 비핵화 이후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투자자로서의 남한의 독점적  
지위 유지 어려울 것이며, 이를 전제로 남북경협 전략 수립 필요
- ❖ 남북경협 전반 : 민족내부 특수거래에서 국가간 정상적인 협력사  
업으로
- ❖ 민간경협 : 유치산업뿐 · 공공재원에서 벤처비즈니스로
- ❖ 정부주도 협력사업 : 통일을 위한 투자에서 민간기업 진출 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 ❖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북한의 주도성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남북경협 추진되어야

26

### 1. 남북경협 여건은 실제로 개선될 것이며, 남북경협 기회는 확대될 것인가?

❖ 남북경협 여건은 개선되고 기회도 확대될 것임

- 국제적 조건, 남북한간의 관계, 북한 정부의 의지 등의 측면에서 남북경협 여건은 개선될 가능
-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생산지로서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북한 경제의 성장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임.
- 시장화■ 반영한 제도개편에 따라 국영기업이 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한 장애는 크게 완화

### 1. 남북경협 여건은 실제로 개선될 것이며, 남북경협 기회는 확대될 것인가?

❖ 한계 역시 존재

- 인프라 및 생산기반 등 물적·경제적 조건은 점진적으로 개선
- 제도나 상층 지도부의 의지나 필요성과는 별개로 북한 경제주체들의 인식이나 관행, 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한 거래의 경험 및 관리 역량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 역시 개선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 법적으로는 투자자산 보호 등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보호■ 보장
- 실제로 다수의 외국 기업이 북한에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본국에 송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확인 필요
- 투자와 관련한 일차적인 관건은 시장합율과 공식합율의 문제 및 이윤 송금 문제 : 오라스콤의 사례

## 1. 남북경협 여건은 실제로 개선될 것이며, 남북경협 기회는 확대될 것인가?

- ❖ 북한과의 사업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 사업보다 리스크가 적은 위탁가공 교역 등을 통하여 협력 기반 확인 필요

## 2. 북한 경제개발 및 남북경협 시 활용할 수 있는 요소

- ❖ 북한 지하자원 개발의 잠재성
  - 잠재 매장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시장에서 대규모로 거래되는 석유나 가스 등의 매장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된 지하자원(무연탄, 갈탄 등)이 국제적인 수요가 많지 않은 자원
  - 대부분 채굴 조건이 좋지 않고,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해서 경제성이 있는 광산도 많지 않음.
  - 초기 남북경협 사업에 활용하거나 북한개발의 시드머니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자금원이 되기에는 부족

## 2. 북한 경제개발 및 남북경협 시 활용할 수 있는 요소

### ❖ 북한 노동력의 활용 가능성

- 11년 의무교육을 받았으며, 현대적인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  
을 했거나 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 사실상의 대규모 실업  
인구
- 농업부문에서 도시부문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잠재적인 노동  
자
- 개성공단에서 확인된 일정 수준의 생산성
- 소프트웨어 ■ 비롯한 일부 기술인력의 잠재력 등

### ❖ 신규 투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없거나 매우 낮음.

31

## 3. 남북한 경제협력 분야

### ❖ 노동집약적인 분야

### ❖ 소재 산업

- 금속 및 화학소재 산업이 붕괴 상황에 있으며, 당분간 자체  
적으로 이들 소재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남북  
경협 및 북한 경제개발이 진전될수록 소재에 대한 수요는 증  
가
- 초기에는 기초 소재 및 중간재 공급, 점차 기초 소재 공급 및  
북한에서 중간재 생산, 중장기적으로 일부 기초 소재 부문  
북한 이전

### ❖ 기술집약적인 분야

- 북한의 인력 및 과학기술 중시정책 활용, 평양을 중심으로

32

### 3. 남북한 경제협력 분야

❖ 평양지역 우선 진출 필요

- 노동력, 산업시설 및 인프라, 그리고 평양의 정치적 영향력
  - ✓ 평양 - 남포지역은 기계, 금속, 경공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주요 기업이 소재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서해안 제조업 및 교통·물류 벨트부터, 특히 남북한 수도권 경제협력 벨트부터 구축

- 남북한 수도권 경제협력 벨트 구상 : 남한의 수도권 - 개성 - 해주 - 평양 - 남포 ■ 연결하는 지역 전체 ■ 남북한 경제협력 벨트로 개발

33

### 4. 남북경협 시 북한측 파트너

- ❖ 과거에는 민경협 등 북한 기관을 통해 남북경협을 추진
- ❖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관기체계 개편으로 북한의 기업, 특히 내각소속 기업과 직접 경협 사업 추진 가능
- ❖ 평양지역에 소재하는 기업과의 경협 우선추진 필요 : 군부의 영향력이 최소화되는 지역

34



## 5. 대북 투자의 안정성 문제

- ❖ 투자 조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 상존, 다만 국가의 경제적 역량이 크게 약화된 점은 고려할 필요
  - 경제관리체계의 개편에 의해 중소규모 국영기업의 경영활동 즉 임금이나 투자조건 등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크게 약화
  - 일단 외국자본의 대북 진출이 상당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대규모 철수■ 초래할 투자조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6. 북한개발 자금조달 문제

- ❖ 상당 기간 동안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프라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
- ❖ 초기 인프라 확충 투자 자금은 국제금융기구■ 통하여 조달 모색 필요.
  - 대일 청구권 자금
  - AIIB,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 자금
-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는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 북한의 개발 방식,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 방식 및 속도, 북미 관계개선 속도 등에 따라 초기에 민간자금과 공적자금의 비중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

**감사합니다**

# 발표자료

[남북교류협력 릴레이 특강 3]

## 『북중무역 변화와 북한경제』

최 장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2018년 1/4분기)

# 북중무역 변화와 북한경제

최창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 팀장

2018. 7. 5. 목요일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 북한 경제 개관 (경제규모, 대북제재, 무역 키워드)

**2** 북한의 대중 수입/ 수출 분석

**3** 시장 물가 및 환율 변화 분석

**4** 결론 및 전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통일정책 개관

### ■ '평화공존, 공동번영' :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 4대 전략: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북핵문제 병행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기반 조성
- 5대 원칙: 우리주도, 강한안보, 상호존중, 국민소통, 국제협력

### ■ 4.27 판문점 회담 합의문 추진 반향

- 즉시추진: 화성기 방출 중지·시설 철거, 815 민족공동행사 및 다양한 분야 교류협력, 104 선언 이행(산림협력, 동질성 회복 사업)
- 남북합의를 통한 추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DMZ 평화지대 및 서해평화수역 조성 등
- 여건조성후 추진: 10.4 선언 이행(경제분야),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인근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8월 중 개소 예정)

### ■ 북한의 기초 변화

- 경제건설총력 집중 노선: 원칙적으로 자력갱생을 통해 이룩하겠다는 방침,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
- 북중정상회담: 대규모 경제사찰단을 대동하여 베이징, 다롄 지역의 농업·인프라 관련 산업시설 참관
- 북미회담: 싱가포르 방문 시 여러시설을 참관

## 최근 한반도 동향: 북미정상회담 평가

### ■ 일각에서 내실 없는 회담이라는 평가 ← 「시기상조 時機尙早」

- 공개되지 않은 '비핵화 시기·체제보장 방법·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고려 필요

### ■ 북미회담의 성과: '비핵화 해법 전환'

- 기존 '시작(북한 先비핵화) → 협상(북미관계 개선, 대북제재 해제) → 완료(북미수교)'
- 북미회담: '시작(북미관계 개선, 협상기간 체제보장&위협 중단) → 협상(단계적 비핵화&제재 해제) → 출구(북미수교&비핵화)
- '남북경협 추진 ≠ 북한 핵개발 원조' 기반 마련

### ■ 회담 이후 전개 과정의 핵심 쟁점

- 비핵화 / 대북제재 해제 : 북한의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해제 어려움  
but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 없이 완전한 비핵화만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수용 불가능
- 시장의 신뢰 회복 : 정치적인 여건이 조성된다하더라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가 필수적임

→ 비핵화 조치+대북제재 해제 이후에도 시장의 신뢰 회복이 중요

북한의 대외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뿐만 아니라 남한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

## ■ 최근 한반도 동향: 동북아 정치외교 환경 개황



## ■ 북한 경제 소개 및 비교

■ 표 1. 북한 경제 규모 및 비교(2016)

구분	GDP/GRDP million USD	GDP/GRDP (억원)
북한(UN)	\$15,789	184,679
북한(BOK)	-	363,730
서울	-	3,570,807
광주	-	336,698
제주도	-	169,105

자료: 통계청, UNCTAD

■ 표 2. 북한 대외무역 규모 및 비교(2016)

구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북한	28.2	37.1	65.3
남한	5,737	4,875	10,612
라오스	33.5	47.4	80.9
몽골	49.1	33.6	82.7

자료: 2017 남북한주요통계지표(통계청, KOTRA)

■ 북한 경제 규모 및 비교(2016): 36조 3,730억 원 \*90여 통계 기준

- 2016년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남한 1,639조 685억 원 대비 1/46의 수준

■ 북한 무역 규모 및 비교(2016): 65.3 억 달러 \*KOTRA 통계 기준

- 북한의 2016년 무역총액은 65.3억 달러로, 남한 1조 6천 6백 12억 달러 대비 1/162의 수준

- 대표적인 landlocked 국가인 라오스와 몽골의 무역규모보다 적은 수준

-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의 무역

- 수출에 대한 대북제재로 2017년 이후 무역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중

➔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하고 무역 변동폭이 큼

■ 북한 인구 통계(2016): 2,490 만 명

- 북한 인구는 2490만 명으로 남한 5,125만 명 대비 1/2 수준

- 남북한 총인구는 7,614만 명

■ 북한 공식/비공식 원/달러 환율: 공식환율 108.4원, 시장환율 평균 8천원

- 공식환율은 108.4원 이내, 시장 환율은 평균 8,000원 수준

## ■ 대북제재 현황

###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과 중국 상무부 고시: 상품무역 즉각적, 서비스 무역 점진적 영향

제재안	관련 사건	대북제재안 주요 내용	중국 상무부 고시
UNSCR 2270 (16.3.2)	4차 핵실험 (16.1.6)	대북 수출 제한: 항공유 수출 금지 ※인도주의 목적 허용 대북 수입 금지: WMD 연계 무연탄 수입 금지 대북 수입 금지: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전염 금지	16년 11호 (1645) 비민생용 북한산 무연탄 수입 금지
UNSCR 2321 (16.11.30)	5차 핵실험 (16.1.6)	대북 수입 금지: 무연탄 수출 상한 설정 은, 동, 아연, 니켈 전염 금지	17년 12호(17217) 북한산 무연탄 수입 전면 금지
UNSCR 2371 (17.8.5)	ICBM급 미사일발사 (17.7.3, 17.7.28)	대북 수입 금지: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금지 해파노동자 고용 금지: 신규 허가 금지 경협 금지: 북한과 합작 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17년 40호(17814) 북한산 무연탄, 철광석, 철 납광석, 납,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UNSCR 2375 (17.9.11)	6차 핵실험 (17.9.3)	대북 수출 제한: 정제유와 원유 상한 설정 대북 수입 금지: 직물 및 의류 완제품 해파노동자 고용 금지: 신규허가 금지, 기존 노동자 비자 갱신 금지 경협 금지: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금지	17년 52호(17923) 대북 석유제품 수출 상한 설정,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
UNSCR 2397 (17.12.23)	ICBM급 미사일발사 (17.11.29)	대북 수출 제한: 정제유와 원유 상한 감축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류, 목재, 선박 수출 금지 해파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노동자 24개월 내 전원 본국 송환 해상 차단: 해상 차단 강화로 북한 입출항 선박 단속 강화	18년 4호(1815) 정제유 및 원유 상한 감축, 대북 수출 금지 품목 확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 ■ 1/4분기 북중무역 키워드 (1~3월)

### ■ 대중 수입: 대북한 수출 제재로 북한 수입의 구성 변화

- 대북한 수출 제재: (수입 총량 제한) 정제유와 원유 (전면 수입 금지)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류, 목재
- 수입감소로 구성 변화 불가피 ① 무엇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가? ② 산업생산 둔화 가능성?

### ■ 대중 수출: 대체 수출 품목 육성 가능성

- 대북한 수입 제재: 무연탄, 의류, 수산물
- 대체 수출: 비제재 광물, 신규 수출 품목 육성 가능성

### ■ 2018년 하반기 북한경제의 지속 가능 여부: 김정운의 경제개발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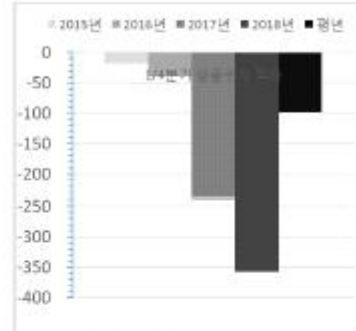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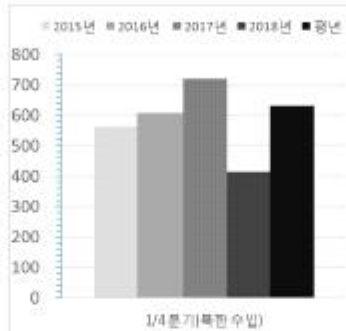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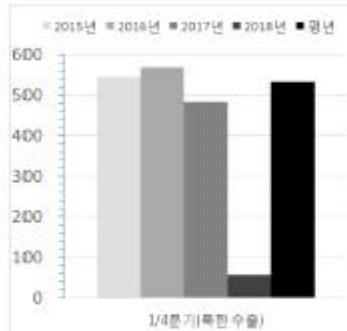
- 유례없는 대북제재로 경제적 난관에 봉착
  -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급감: 유엔 중앙긴급구호자금(CERF, 130억원 상당) 대상 북한 제외, 일부 수교국 인도적 지원 중단(호주, 영국 등)
- 최소한의 수입 유지를 위한 외화 확보 시급
- 왜 시장 물가와 환율은 안정적인가
- 하반기 경제 전망은?



## ■ 북중 무역 추이(17~18.3월)

- 17년 : 수출 대폭 감소(전년 대비 33.0% 감소), 수입은 소폭 증가(전년 대비 8.1% 증가) (중국해관 통계 기준)
  - 수출 (17.2억 달러), 수입 (33.3억 달러), 상품수지 (16.1억 달러 적자)
- 18년 1/4분기: 수출입 모두 감소 → 수출은 급감, 수입은 하향 안정세 (KITA 통계 기준)
  - 수출 (0.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88.2% 감소), 수입 (4.1억 달러, 42.5% 감소), 상품수지 (3.6억 달러 적자)
  - 18년 예상: 수출 (4억 달러 내외, 평년 16% 수준, 평년 25억 달러 기준) 수입 (15억 달러 내외, 평년 50% 수준, 평년 30억 달러 기준)

1/4분기 북중무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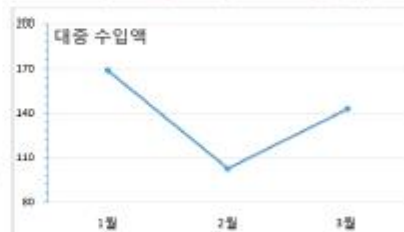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IEP 한국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9

## ■ 대중 수입 추이(1/4분기)

- 감소 후 하향 안정세: 월평균 1.4억 달러 수준에서 안정화 (평년의 53.8% 수준, 평년 기준 2.6억 달러)
  - 시장 물가 및 환율 상승은 나타나지 않음
  - 소비자 수입 증가
    - 제재 이후 오히려 시장이 더욱 안정화, 활성화
  - 산업생산 둔화: (북한 수입 통계는 경기 선행지수의 성격)
    - 수입 둔화 (소비품 수입 ↑ 산업수요품목 수입 ↓) → 총수입 감소가 적은 듯한 착시 야기



### ■ 수입 변화의 주요 원인

1. 외화 부족(수입 규모 축소): 주요 품목 수출 제재로 외화 수입 급감 (무역수지 악화)
  - 상품수지 적자 누적: 16년 (-5.1억 달러), 17년 (-16.1억 달러), 18년 1/4분기 (-3.6억 달러), 평년 적자 규모 (-5.1억 달러) (자료: 중국해관 통계)
  -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 추정: 5억 달러 내외 (상품수지 적자를 20년 이상 유지, 상품수지 손실을 서비스 수지로 만회한 것으로 가정)
  - 외화손실액 추정
    - 무역수지 추정(=상품수지+서비스수지): 16년 (-0.1억 달러), 17년 (-11.1억 달러), 18년 (-10억 달러 예상)

18년말 외화누적손실액: -20.2억 달러 (북한 외화보유량 50억 달러 가정 시: 40.4% 손실, 100억 달러 가정 시: 20% 손실)

→ 북한 외화보유량이 50억 달러라면, 2019년 상반기에는 수입규모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0

## ■ 대중 수입 추이(1/4 분기)

### ■ (계속) 수입 변화의 주요 원인

#### 2. (임가공용 원자재 수입 감소) 수출 제재(의류·수산물)로 관련 원자재 수입 감소

##### · 의류 원자재 (의류·직물류 감소)

· 인조방직용 섬유재료(HS 54, -60.7% (전년 4분기 대비), 1,820만 달러), 의류의 부속품(HS 61, -68.6%, 1,073만 달러), 에리아스 편물(HS 60, -55.7%, 1,011만 달러), 인조 섬유(HS 55, -42.0%, 866만 달러), 부직포, 끈(HS 56, -24.1%, 820만 달러), 방직용 섬유(HS 63, -17.3%, 480만 달러)

→ 의류 원자재 7,417만 달러 감소 (1/4분기 수입의 17.9%, (비중 추정= 감소액 / 4분기 수입액))

##### · 수산물 원자재 (명태를 동태·황태로 가공) : 수산물(HS 03, -46.8%, 1,736만 달러)

→ 수산물 원자재만 1,527만 달러 감소 (1/4분기 수입의 3.7%, (비중 추정= 감소액 / 4분기 수입액))

#### 3. 하반기 전반적인 산업활동 둔화 예상

##### · 산업활동 필수적인 품목(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수입 감소 (일부 품목 국산화&재고분으로 제한적 대체 가능)

· 플라스틱류(HS 39, -7.2%, 4,105만 달러), 종이류(HS 48, -17.7%, 1,158만 달러), 전자기기류(HS 85, -91.6%, 759만 달러),

기계류(HS 84, -86.3%, 687만 달러), 고무류(HS 40, -46.0%, 680만 달러), 무기화학류(HS 28, -25.8%, 442만 달러)

## ■ 대중 수입 추이(1/4 분기)

### ■ (계속) 수입 변화의 주요 원인

#### 4. 생필품 수입 증가: 시장 거래 활성화 가능성 (산업관련 수입의 감소 폭이 더 적은 듯 보여지는 착시효과 야기)

##### · 시장 활성화 or 주민의 구매력 유지?

· 과일(HS 08, +62.1% (전년 4분기 대비), 3,545만 달러), 동식물유지류(HS 15, +68.8%, 3,464만 달러), 밀가루(HS 11, +1859.4%, 2,695만 달러),

음료, 술, 식초(HS 22, +30.5%, 831만 달러), 의약품(HS 30, +157.2%, 723만 달러), 철강(HS 17, +411%, 522만 달러), 비누류(HS 34, +164.6%, 509만 달러)

→ 가설: 무역회사들의 시장 활용 가능성:

④ 민간이 보유한 외화 흡수를 위해 시장 팔릴만한 물건 위주로 수입 ⑤ 무역회사와 기업소들이 연간 계획량 충족을 위해 시장을 활용

⑥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 ⑦ 제재에 대비한 비축? ⑧ 통상적인 거래 관행(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대체 수입 증가)?

#### 5. 부동산 개발 정책 완료된 듯 ('17년 완료): 부동산 개발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 선전 & 경기 부양 완료 한듯

##### ·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대규모 건설 및 문명 경관화 조치 완료

· 가구류(HS 94, -27.0%, 850만 달러), 인테리어용 내외장재(HS 69, -29.3%, 617만 달러)

→ 건축용 원자재만 515만 달러 감소 (1/4분기 수입의 1.2%)

## ■ 대중 수출 추이(1/4 분기)

### ■ 수출 감소와 대응

#### 1. 무연탄, 철광석, 기타 광물, 의류, 수산물 수출 금지로 상품수지 악화 불가피

• 철강(HS 72, -60.3% (전년 4분기 대비), 808만 달러), 철광과 기타광(HS 26, -90.6%, 596만 달러), 무연탄(HS 27, -99.3%, 157만 달러), 의류(HS 61& 62, -100%, 0만 달러)

#### • 북한의 주력산업인 광산업, 의류산업 등의 즉각적인 산업생산 둔화 불가피

→ 하반기 다른 산업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관련 품목 재고가 소진된 이후 추가 생산은 제한적일 듯

(광산업과 섬유산업은 의뢰인에게 원자재, 식량, 작업 장비 일체를 공급받는 방식. 추가 주문 중단 시 관련 지원도 모두 중단 불가피)

#### 2. 대체 수출 품목 육성: 성공적이지 못함 (생산 여력이 크지 않아 수출 제한적)

##### • 신규 광물 자원 수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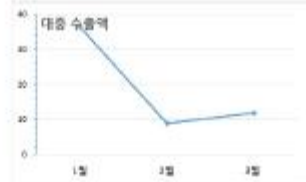
• 텅스텐광(HS 2611, +3,278.0%, 475만 달러), 마그네사이트(HS 2519, +91.3%, 452만 달러), 흑연(HS 2504, +46.5%, 431만 달러)

##### • 농산물 & 전사용 모형 수출 확대

• 밀종(HS 0802, +11.1%, 431만 달러), 전분(HS 1108, +85.9%, 48만 달러), 전사용 모형(HS 9023, +56.7%, 223만 달러)

##### • 신규 임가공품 육성 중이나 성과는 좋지 못함 (관련 품목의 원자재 수입 증가): 가발, 신발, 가방

• 가발, 가수용(HS 6704, +234.4%, 468만 달러), 가발(HS 4202, +66.0%, 526만 달러), 신발(HS 6403, +167.0%, 46만 달러), 신발 부속품(HS 6406, +1297.0%, 39만 달러).



## ■ 시장 동향

### ■ [안정적인 시장물가와 환율] 제재에도 안정적인 시장 물가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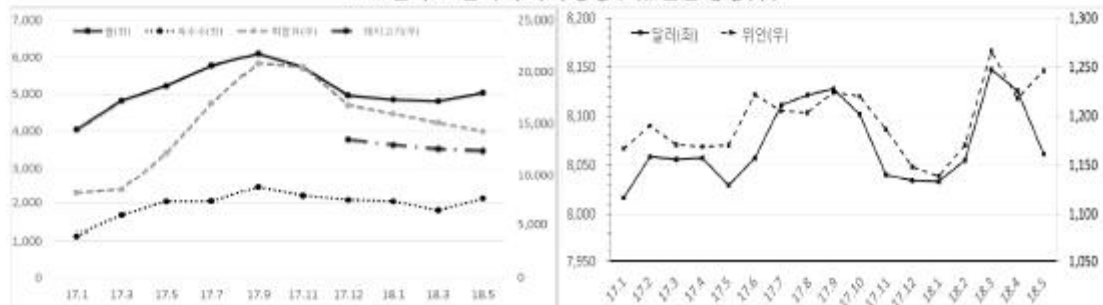
#### - 시장: 디플레이션 가능성. 공급은 대폭 늘었으나, 수요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 3/4분기 물가 소폭 하락 안정세

• ④ 수출되던 품목이 내수시장에 공급 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품목의 수입량 증가

#### - 환율: 전반적으로 안정적. 예외적으로 5월 위안화 환율 상승 (추가적인 관할 필요)

• ④ 통상적인 수준의 변화 ⑤ 중국 일본 등의 수입으로 위안화 수요 급증 가능성

17-18년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좌), 환율 동향(우)



자료: DailyNK([www.dailynk.com](http://www.dailynk.com)), 검색일: 2018.6.3을 참고하여 저자작성.

## ■ 결론 및 전망

### ■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업생산활동 둔화 불가피 (수입 감소 규모가 예상보다 적은데, 이는 생필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
  - 대북제재로 일부 전자제품, 기계류 수입 불가 (비공식 무역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듯)
- 수출급감으로 외화 수급 악화
  - 대체 수출품목은 찾지 못하고 있음

### ■ 안정적인 시장 물가와 환율 →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 공급은 대폭 상승, 수요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무역회사와 기업소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징후 (이례적인 생필품 수입 증가)
  - 인플레이션으로 반전 가능성(내년 상반기, 결국 외화 보유 규모에 의해 결정)

### ■ 외화 고갈 여부: 아직은 여력이 있는 듯.

- 다만, 민간부분의 외화 흡수를 위해 시장을 활용하는 듯한 징후
- 북한의 외화 보유액이 50억 달러라면, 2019년 상반기에는 수입이 크게 줄고, 시장물가도 상승할 듯
- 외화 보유액이 100억 달러 규모라면, 2020년까지는 별다른 영향 없을 듯

## ■ 결론 및 전망

### ■ 김정은 위원장의 산업정책 전반적인 수정 불가피할 듯한 징후

- 산업생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 규모 유지가 어려울 듯. Ⅳ분기에 이미 주요 품목의 수입 감소 발생
- 상반기 시장은 활성화 될 듯 (시장 효율성 개선에 의존한 경제 운용, 민간에 축적된 외화 활용)
  - 다만, 수입이 감소할 경우 2019년 상반기에는 시장 둔화 및 물가 환율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식량 생산 감소 가능성
  - 1/4분기 비료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 ④ 외화 부족으로 수입 감소 가능성 ⑤ 자체 기술 개발로 수입 대체 가능성
- 하반기 각종 70주년 기념 행사 축소 가능성
  - 정권수립 70주년 기념(9월9일), 6.15남북 공동선언, 광복절, 10.4남북 공동선언
  - 북려 수교 70주년 기념(10월 12일) 북중 수교 70주년 (19년 10월 6일)

### ■ 제재 유지 시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경제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듯

- 제재의 효과는 점진적이지만 점점 더 확실하게 나타날 듯
- 대북제재의 강화보다는 현 수준 유지만 하여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듯
-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인도적 지원 확대 검토 필요



# 감사합니다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 팀장

E-mail: [choi.j@kiep.go.kr](mailto:choi.j@kiep.go.kr)

## MEMO

[illegible]

## MEMO

[illegible]

## MEMO

[illegible]